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시편 136:1)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국의 가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살에 캄보디아로 떠나 가을이 기억에 없던 둘째 하진이는 나뭇잎 색깔이 바뀐다는 것을 오래 궁금해 했었는데, 드디어 처음 보는 단풍과 낙엽을 신기해하며 좋아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안식년(본국사역)을 마무리해가며 1월초 캄보디아 귀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깊이 감사할 뿐입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여정을 인도하시고,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 가운데 지혜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나누는 복음

최근 캄보디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학교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고등학교에서부터 부분적으로 등교를 시작하던 것이 지금은 중학교와 초등학교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에 대하여 종교 모임도 허가되었고 사회적인 규제나 경계는 느슨해진 것 같지만, 코로나 유행은 여전히 심각하고, 어느 때보다 코로나 감염이 주변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캄보디아 이웃들을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노꼬 기독교학생회에서는 시엠립 학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족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직장을 잃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학교를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감뽕짬에 있던 피룬 학생 아버지도 코로나 감염으로 돌아가셔서, 소노꼬 학생들이 함께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시엠립 시나 간사가 최근(15일)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열을 앓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걱정이 되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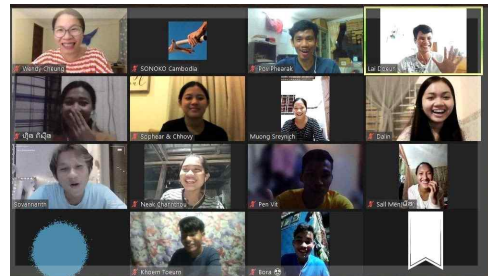
달린 (빠냐삿대학 1학년)

저는 빠냐삿 대학교 1학년 달린 자매입니다. 소노꼬는 이번에 전도를 위한 학생 연합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다른 대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레크레이션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소그룹에서 자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을 소노꼬 프로그램에 초대했는데, 저처럼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참석을 거절했지만,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친구들은 소노꼬 형제 자매들이 친절해서 모임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줌 모임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달린 학생의 나눔입니다. 졸업생 리다 자매의 동생으로, 지방에서 프놈펜으로 올라와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배우며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 귀합니다. 대학 캠퍼스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소노고 기독교학생회 역시 온라인으로 계속 모임을 이어 왔습니다. 비대면 성경공부 소그룹을 통해 꾸준히 학생들을 만나고, 전도 모임을 통해 비그리스도인 친구들도 접촉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프놈펜 소재 대학에서 공부해 오던 학생들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렇게 모임을 지속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쩐, 쩌리 형제는 시골 지역에 살면서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연락이 어려운데, 불신가정 안에서 믿음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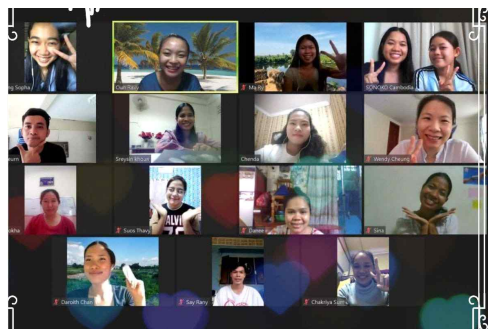
현지 간사들의 믿음의 경주

올해 초 결혼한 사오피어 간사는 임신 4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출산까지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십대 헌신한 사역자들이 또 다른 인생의 관문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시엠립에서 시나 간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한 쩌다 간사는 지난 9월부터 전임 간사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에는 간사 수련회가 있었고,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페레악 총무 지도 아래 현지 리더십이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간사들은 계속되는 온라인 모임과 여러 사역으로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노고 사역을 통해 대학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는 캄보디아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역자들과의 만남과 은혜

저는 지난 두 달간 동역자들을 만나며,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선교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선교 동원을 위한 모임, 기도회 등을 통해 캄보디아 학생 사역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선교 월간지에 소노고 사역을 소개할 수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캄보디아 청년 학생 사역을 더 알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선교후보자 분들과도 말씀을 나눌 기회도 있었는데, 저희 처음 부르심을 상기하며, 다음 걸음을 위해 영적으로 거룩하게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귀임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소노고 기독교학생회 대면/비대면모임

한국에 있는 동안 캄보디아에서 겪은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이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상담을 통해 필요했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지난 4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만져 주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가졌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동역자들과 만날 수 있었는데, 제게 큰 회복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치유하고 계신지 나누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오래 그리워했던 만남들을 가질 수 있었음이 감사합니다. 배움의 시간을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크마에 성경 옥중 서신을 함께 읽고, 에스라 성경연구원에서 공개강좌를 통해 성경 강의를 들으며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역을 통해 소노고 간사들을 훈련 지원하고, 현지 교회들을 돕고자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잘 구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주 이야기

“나는 나 / 언제든지 나는 나 / 무엇을 해도 나는 나 / 한국에서 살아도, 캄보디아에서 살아도 / 언제든지 나는 나 / 무엇을 해도 나는 나 ” (하진)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주신 것도 감사했어요. 이제 곧 캄보디아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다시 기대와 아쉬움이 찾아옵니다. 다시 캄보디아에 돌아가 친구들을 만나려니 기대가 되고, 가족들과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아쉬운 감정이 들어요. 가끔은 한국에 영원히 남고 싶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사촌 동생들... 친구들... 선생님들과 선교사님들... 모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의진)

위는 하진이가 학교에서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시를 읽고 독후 활동으로 쓴 시이고, 아래는 의진이가 오엠에프 EAM 선교잡지에 쓴 글의 일부입니다.

본국사역 기간을 마무리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 아이들은 날마다 캄보디아에 돌아가는 D-Day를 세고 있습니다. 기대 반 아쉬움 반 마음인 듯합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놀고 공부하고, 밤에는 캄보디아 꿈을 꾸기도 하고 돌아가서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긴장 되는지 의진이는 손거스러미를 자주 만지고, 하진이는 화장실을 자주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는 흔들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교사 자녀로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아이들을 언제나 주님의 깊은 평강으로 붙들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담학기 2학기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인턴십이 시작되어 실제 상담 실습을 하면서 내담자 입장도 되어보고 상담자 입장도 되어보기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선교현장에서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열심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 사역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사역을 이루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처음 캄보디아 나갈 때보다 더 연로해지신 양가 부모님을 두고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겁습니다. 자녀를 다 캄보디아에 보내고 한국에 두 분만 남으시는 김성은 선교사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친정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본국사역 기간 좋은 안식을 주시고, 후원교회 및 동역자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
2. 캄보디아 출국(1월 3일)을 위한 준비에 지혜 주시고, 깨어 영적으로 무장되어 선교지로 돌아가도록.
3. 캄보디아 코로나 확산 속에 캄보디아 지체들의 가족 및 친구들이 감염되고 있는데 보호해 주시도록: 아버지를 잃은 피룬 형제 가족을 위로하시고, 시나 간사가 코로나 감염에서 잘 회복되도록.
4. 소노고 기독교학생회 현지 간사들(페레악, 사오피어, 시나, 라이, 쨌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고 좋은 목자로 성장하도록: 사오피어 간사가 임신을 했는데, 태아와 산모가 건강하도록.
5. 양여주 선교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6. 자녀들이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며 좋은 추억을 갖게 하심을 감사. 의진이가 친구들과 잘 작별하고, 사춘기에 접어드는데 영혼과 정서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진이가 잦은 이동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도록.